해피엔딩을 그리며

**S1 저녁9시쯤/고등학교 교실**

종소리.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교실, 창 밖이 어둑하다. 시끄럽게 떠들며 짐 챙기는 학생들.

맨 앞쪽 구석 자리 앉아있는 성규와 친구. 막 책을 덮으려는데 큰 날파리?가 날아 앉는다.

성규: 날파리가 졸라 크네…

친구: 그거 하루살이야

성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친구 쳐다보는)이렇게 큰 하루살이가 어딨어?

친구 키득거리면서 교실을 나간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성규, 왠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가방을 싼다.

**S2 복도**

복도에 일렬로 서있는 사물함. 그 앞에 성규가 있다. 사물함 자물쇠를 채우고 어두운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성규의 뒷모습.

성규 마음의 소리: 그 졸라 큰 하루살이가 부럽다. 짧고 굵게 사는 것이 특히나…

**S3 어두운 골목길**

혼자 터덜터덜 걷는 성규, 그 앞 골목길에 불량한 청소년 하나,,둘,,, 그리고 예쁜 여학생

여학생의 미대를 준비하는 듯 한 스케치북, 남자 아이들이 뺏어 드는데. 남자아이들 낄낄 거리는 소리. 여학생 울상이다. 성규, 그 모습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다른 길로 돌아간다.

성규 마음의 소리: 오늘로 일곱 번 째, 또 그 애를 도와주지 못했다. 비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이게 맞다.

**S4 성규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성규. 15층까지 가야 한다. 근데 그 사이 층의 버튼을 모두 다 누른다.

한 층 올라갈 때 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닫혔다가…열렸다가..닫혔다가…

집에 가까워 질수록 성규의 표정이 어두워 진다.

**S5 같은 동의 아파트, 일 층**

아까 그 여학생 민희. 짜증난 얼굴로 1층에 서있다.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지 한참 되었건만 무슨일 인지 엘리베이터가 층층 마다 멈추며 올라가느라 1층엔 올 생각도 안 한다. 결국 걸어 올라가려는 듯 계단 쪽으로 걸어간다.

**S6 다음날 아침 오전, 성규의 방**

주말이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성규. 씻지도 않고 방 구석에 있는 작은 가방을 연다.

가방 속에 보이는 스무 개쯤 되어 보이는 하얀 봉투들. 자세히 보면 유서다. 그 가방만 매고 집을 나선다.

**S7 아파트 밑 놀이터**

어제 그 스케치북을 든 민희.. 놀이터를 가로질러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어온다. 문득 하늘을 바라본다. 그런데 옥상에 누가 서있다, 아슬아슬하게..잘못 봤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그래도 있는 그 사람. 놀란 민희, 스케치북 내던지고 아파트 옥상까지 내달린다.

**S7 아파트 옥상**

성규:(악쓰며)시발!!!!! 죽어 버릴거야

하면서 소리친다. 어쩐지 죽을 용기도 마음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설픈 자살시도.. 이번엔 신발 벗어 들고 저 뒤쪽부터 달려온다.

성규: 으아아악!!!!!!

이번엔 메고 온 가방 문을 열고 가방 위로 던진다. 그 많은 유서가 공중에 휘날려 차례로 옥상바닥에 착지하고, 성규는 계속해서 자살시도.. 난간 밖으로 한 쪽 다리를 내놓았다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다시 다리를 들여놓는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지른다.

성규: 이….썅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다 지쳤는지 털썩 주저앉는다. 눈을 감고는 깊은 한숨을 쉰다. 그리고 눈을 뜨는데 무엇인가 보인다. 깜짝 놀란다. 간 떨어 질뻔한 성규. 눈 앞에 민희가 서있다. 민희, 성규의 생쑈, 다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는 성규 내려다 본다.

민희: 병신…..

**S8 아파트 옥상**

강렬한 한마디를 남긴 채 아래로 내려가는 민희. 뒷모습이 미련이나 궁금증 따위는 없다는 듯이 쿨해 보인다. 뻘줌해진 성규, 아까 뿌린 유서 다시 주워 담는다, 아까 그 가방에, 쓸쓸하게 엎드려서.. 성규의 뒤편으로 보이는 하늘이 파랗다.. 구름은 하얗다.. 선명하게.

**S9 며칠 뒤/학교/낮**

쉬는 시간..애들이 시끄럽다. 성규,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 반에 민희가 있다. 왠지 모르게 반가워서 문 앞에 서서 지켜보는데, 저번에 민희 괴롭히던 불량 청소년들, 모두 민희와 같은 반이다.

불량청소년: (지들끼리 낄낄거린다..)오올~예술 한다고 너무 도도하게 구는 거 아니야?

등등 민희 괴롭히는데, 주변에 있던 여자애들 수근 거린다.

주변 여 학생들 :원래 이쁜 것 들이 얼굴값 한다잖아

 비싼 척은 지 혼자 다하고 어우 재수없어

그와 더불어 싸가지..어쩌고 하는 전형적인 여자들 뒷담화 이어진다.

그때 민희와 여전히 서있던 성규.. 눈이 마주친다. 0.1초 만에 눈 돌리는 성규, 서둘러 자신의 교실로 들어간다.

**S10 교실**

자리에 앉는 성규

성규 마음의 소리: 이걸로 여덟 번째 그 애를 도와주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 왕따?

성규: (혼잣말, 중얼거리듯이) 그래도 예쁘긴 더럽게 예쁘네..스벌…

그러고는 수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한다.

**S11 수업시간/교실**

선생님이 종이 뭉탱이 들고 들어오신다.

선생님: 수업 전에 설문조사 하나하자, 요새 학교폭력 어쩌구 말이 많은데~ 우리학교는 없다고 믿고, 우리 반은 더더욱 없다고 믿는다! 5분 안에 빨리 내라…

하면서 앞자리 애들한테 대충 던진다.

성규도 설문지 받는다. 난감하다. 학교 폭력 목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멈칫 한다. 주변을 둘러본다. 쓰는 애들은 없는 것 같다. 민희가 떠오르지만 선뜻 쓰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뒷자리 애가 설문지를 걷어간다. 벌써 5분 다됐나 하는 억울한 표정의 성규..

**S12 옆의 민희네 교실**

역시 설문지 받은 민희의 모습. 성규와는 다르게 거침없는 민희의 체크. 그런데 모두 ‘아니오’ 이다. 학교폭력을 최근 6개월 내에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아니오 처럼….

**S13 저녁시간/복도**

성규, 미술 실 앞 복도를 지나간다. 미술 실을 보니 민희가 생각나 유리창으로 들여다본다.

그런데 정말로 민희가 있다. 그림 그리는 민희 뒷모습을 쳐다본다. 넋을 놓고…계속…예쁘니까…

성규 마음의 소리: 심장이 쿵쾅거린다.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진 걸까. 그렇다면 저 애가 내 첫사랑이 되는 걸까. 그렇다면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 내가 공주님 구해주는 용감한 기사가….

한참 생각 하고 있는데 민희가 문을 열고 나온다. 성규, 이번엔 놀라서 도망도 못 갔다.

그런데 민희, 울고 있다.

성규, 놀라서 쳐다본다

민희:(성규한테 그림 한 장을 내밀면서) 나 이제 이 학교 안 나와. 전학 갈 거거든

민희는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성규, 또 아무 말도 못했다.

**S14 복도**

성규, 복도에 홀로 서서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든다. 민희가 준 그림을 펼쳐보는데

성규가 그려져 있다. 얼굴이 꽤 자세 하게…그림 속의 성규는 웃고 있다

그림 쳐다보며 계속 서있는 성규, 표정이 복잡하다. 심란하다.

**S15 야자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맨 처음 그 골목이다.**

익숙한 장면, 저번과 똑같은 불량 청소년이 똑같은 민희를 똑같이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성규는 똑같지 않다. 약간은 긴장된 걸음으로 다가간다. 입술과 손이 떨리지만 말을 한다.

성규: 이…이 자식들아!!!! 지겹지도 않냐, 맨날 괴롭히면!!!! 씨발!!!!!!!!

성규 목소리가 너무 크다. 민희랑 불량청소년들 모두 놀란다. 말 없이 성규를 쳐다본다.

그 사이 민희는 골목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성규는…먼지 나게 얻어 터진다. 성규 울면서 얻어터진다. 그런데 입은 웃고 있다.

**S16 1년 후 이른봄/성규 방**

성규의 유서가 들어있던 작은 가방에 더 이상 유서는 들어있지 않다. 대신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이 들어있다. 그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한 층 씩 누르는 짓 따위 이젠 하지 않는다. 편안한 성규의 표정.

성규 마음의 소리: 그 때의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유서를 썼었는지 아직도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아마도 일종의 애정결핍이 아니었을까. 관심 받고 싶어서 발악하는. 민희의 그림 한 장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었을까. 스무 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한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그날을 기다린다.

**S17 아파트 입구**

성규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를 휙 빠져나간다. 주민 게시판 따윈 보지 않는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게시판에 붙어있는 그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그려져 있다. 자세히 보면 성규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하성규 연락처:010-xxxx-xxxx 연락주세요